

돈황에서 서안까지 - 하서회랑(河西回廊)의 불교미술

강사 소개



강사: 하정민 계명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듀크대학(Duke University)에서 불교 및 중국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실�크로드연구원 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인도에 기원을 둔 불교미술이 중국과 한국으로 전해지며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표이다. 최근에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확산된 불교 문화유산, 특히 미얀마의 불교 사원 벽화 및 석각 대장경, 베트남의 불교미술과 대장경 목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실�크로드 미술사전-서부: 중앙아시아 서투르키스탄(공저, 2021),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입상의 한국 불교조각사적 의의」(2023), 「베트남 북부 사원의 불교 목판 연구 시론」(2023), 「두 불교 고사(故事)의 특이한 결합—중국 남북조시대 후기 불교조각에 나타난 아育왕시토(阿育王施土)와 정광불수기(定光佛授記) 본생(本生) 장면」(2022) 등이 있다.

강의 요약

하서회랑(河西回廊)은 중국 감숙성(甘肅省)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쪽 끝과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중국 중심부인 서안으로 이어진다. 이 지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중요한 교역 경로인 실�크로드의 핵심 부분을 이루며,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와 상품, 종교가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하서회랑은 불교와 불교미술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지역을 통해 불교 사상과 문화가 중국 내륙으로 전해지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교 석굴, 사원, 조각, 벽화 등이 조성되어 중국 불교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서회랑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서로 만나고 융합한 역사적 교차점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유럽과의 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다. 이번 강연은 중국 하서회랑에 자리 잡은 불교 석굴들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미술사적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 지역의 석굴이 불교의 전파 및 발전과 중국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탐구한다.